



거룩함은 천국의 필수 조건이다

- by Adelaida De Carrillo www.DivineRevelations.info/KOREAN

[아델라이다 드 카릴로](#)

볼리비아에 사는 자매인, 아델라이다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데려 가셨습니다. 그녀에게 주님이 보여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가기 위해 거룩함이 요구되며, 어떤 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지에 대해서이다.

이 간증을 읽으시는 동안 기도로, 결심함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시작되었다

에스겔 36:25-26 에는 이렇게 기록 되어 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나의 간증은 이렇게 시작된다. 주일 아침 9시쯤에 우리 교회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고 계셨다. 목사님은 내게, “아델라이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하셨다. 그녀는 자신의 손 바닥에 기름을 가득 부어 나의 몸에 붓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귀와, 다리와 배 그리고 몸에 바르기 시작하였다. 그녀가 나의 이마에 손을 얹었을 때, 나는 거대한 빛이 위에서부터 내게 내려 오는 것을 보았다. 그때부터 나는 정신을 잃고 무슨 일이 일어 나고 있는지 몰랐다.



천국의 여정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 나를 데리고 그들과 함께 하늘로 나를 들어 올렸다. 천사들은 올라 가면서 우리의 길을 막는 악한 영들과 싸웠다. 검은 구름과 같은 막이 우리를 가지 못하게 막는 영들이 쳐 놓았었다. 나는 하늘에서 영롱한 빛이 나오는 것과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들이 그의 손에 빛의 검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칼을 내밀어 그 악령들과 싸워 우리는 지나 갈 수 있었다. 그 천사는 왕자와 같이 보였다: 그의 가슴에는 금으로 된 흉배가 있었으며, 매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금 빛으로 빛이 났고 그의 얼굴은 햇살과 같았으며, 매우 아름다웠다.

내 영혼의 씻음과 변화

우리는 “하나님의 회사” 라고 쓰여진 매우 큰 장소로 갔다. 나와 함께 간 두 천사가 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세 천사들에게 보내었다. 그들은 나를 씻기 시작하였다. 나는 “내게 무엇을 하고 있지요?” 라고 물었다. 천사들은 아무 말도 없이 나의 몸을 계속 씻기만 하였다. 그들이 나의 무릎을 씻기 시작하였을 때, 너무 아파서 왜 나를 씻는지 물었다.



갑자기 내 속에서 한 음성을 들었다. “나는 네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무릎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한다. 그 무릎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돌아다니는 무릎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증보하기 위해 이 무릎을 주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으며, 내 기도 시간은 극히 짧았는데, 주님은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기를 원하셨다.

천사는 나의 다리를 씻기 시작하였는데, 너무 세게 문질러 나는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다리는 다니며 나의 복음과 내 말을 증거하라고 주었지, 돌아 다니며 이웃을 헐담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다리를 씻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 과정은 계속되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주님은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을 위해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에, 나는 다른 세 천사가 기다리고 있던 다른 방으로 보내 졌다. 그 곳은 다르게 보였는데, 나는 기계 같은 것들을 보았다. 천사들은 어떤 종류의 기름으로 나의 눈을 씻기 시작하였다. 나는 눈 뿌리가 뿔뿔히 나오는 것 같이 느꼈다. 나는 계속 사정을 하며 왜 그렇게 하는지 물었다. 그곳은 나의 눈의 껍질을 벗겨 내는 것처럼 아팠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 눈에서 정어리와 같은 것들이 빠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

주님은, “딸아, 나는 네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네가 여태까지 땅에서 행한 일들은 내가 기뻐하는 일들이 아니었다. 나는 네가 보는 TV 와 소셜 (연애 소셜) 등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다.” ... “그것들은 네 삶에 아무 유익이 없다.” ... “내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볼 때 마다 나는 기쁘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나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주님은 “너는 자정부터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영화와 수 많은 포르노가 들어 있는 영화를 보았다. 나는 너에게 그런 것들을 보라고 눈을 준 것이 아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내게 눈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눈을 씻어줘야 한다.” 천사들은 내가 주님께 자비를 간청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눈을 씻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내 눈에 기름을 붓자,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달라져 보였고, 나의 눈은 온전히 변화되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남편들을 향해 더 이상 음란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 나는 다른 남자들을 좋아하고 있었으며, 주님은 그런 것들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밋밋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으며, 성경 말씀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 반대의 삶을 살았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음란이 분명히 죄라는 것이며, 그런 TV 와 소설을 보는 것, 세상적인 영화를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다.

천사들은 계속하여 청결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작고 긴 거울을 나의 귀 속에 집어 넣었다. 그들이 나의 귀를 긁기 시작하였을 때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곧 검은 액체와 같은 것들이 나의 귀에서 흘러 나왔으며, 나중에는 회색 빛 액체가 나왔다. 나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주님은, “딸아, 내가 너의 귀를 씻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을 흉을 보는 험담에 네 자신의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내게 와서 목사들에 대해 험담을 하였을 때, 너는 그 말을 듣기를 좋아 하였다. 심지어 네 교회 목회자의 흉을 보는 말을 즐기기도 하였다. 네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 방패가 되어 주고 그들의 험담을 고쳐 주는 대신 너는 그들과 함께 흉을 보기를 좋아 하였다.” “다시는 남의 나쁜 말을 하는 험담을 듣지 말아라. 어떤 형태이든지 남의 험담은 듣지 말아라. 그것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나는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내가 잘못된 것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 아무도 그분 앞에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가 땅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 나는 귀에 있는 극심한 통증으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나의 귀에 천사가 기름을 부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시간부터 너는 내가 허락하는 것만을 듣고, 내가 하라는 것 만을 하며,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아델라이다가 아니다. 너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다른 부서와 같이 보이는 곳으로 가서 천사들이 나의 입을 씻기 시작하였다. 문자 그대로 나의 혀를 입에서 꺼내어 어떤 접시 같은 곳에 올려 놓았다. 천사들은 나의 혀를 씻기 시작하였는데, 그 고통이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주님은, “나는 네가 정결하기 원한다. 나는 네가 깨끗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천사들이 내 혀를 씻자 검은 액체가 흘러 나왔으며, 나중에는 흰 액체가 나왔다. 천사들은 나의 혀를 씻기 위해 매우 단 물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나의 혀에 기름으로 부었다. 나의 입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검은 액체가 내 입에서 흘러 나왔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더 이상 남의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싫어 하는 것을 그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의 혀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에 많이 걸려 있다. 너는 많은 거짓말을 하였다. 거짓말을 그쳐라!” ... “거짓말 하는 자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 거짓말 하는 자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 오지 못한다.”

나는, “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그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 주세요” (계21:8) 라고 말했다. 나는 너무 큰 고통 중에 주님께 그렇게 말하였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가 만일 이전과 같이 계속 행한다면, 너는 나를 잃어 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는 결코 변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네가 구원을 받기 원하고, 그것이 나의 이 모든 행한 일의 이유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와 꼭 같이 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보이려 한다. 네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면 너의 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입은 온전히 깨끗하여 졌으며, 주님은 내게 물을 조금 마시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혀와 입에는 어떤 특별한 수정과 같이 맑은 기름으로 부어졌다. 그 향기는 땅의 어떤 기름과도 비교할 수 없이 향기로웠다. 천사는 나의 혀를 입에 다시 넣고, 나의 목을 재갈로 고정시켜 놓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

우리 중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 우리는 쓸데 없는 말과 더러운 말이나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말에 동참하는 일을 중지하여야 한다. (잠8:13) 그들 가운데는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들, 자매들, 전도자들, 선교사들 등이 있어서 무익하고 더러운 말을 좋아한다. 나는 주님이 내게 보여 주신 것으로 당신의 삶도 바뀌기를 원한다.



천사가 나의 혀를 다시 넣은 후에, 나는 온전히 바뀌게 되었다. 아무도 내가 다른 사람의 나쁜 말을 하도록 하지 못했다. 나는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코에도 같은 경로를 거쳤다. 처음에는 검은 액체가 나오고 나중에는 흰 액체가 흘러 나왔다. 나의 코에 기름이 부어 졌지만, 그 과정의 고통은 엄청났다. 나는, “주님, 제가 코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네게 오는 사람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을 때 너는 그들 가운데서 기분 좋게 앉아서 그 냄새를 맡았다.**” 나는 “주님, 맞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천사들은 나를 또 다른 방으로 데려 가서 하얀 비누와 같은 것으로 나의 온 몸을 씻겨 주었다. 나의 몸에서는 회색 빛의 액이 흘러 나왔다. 천사들이 나의 몸을 세게 문질러 씻어서, 피부가 벗겨 지고 피가 나왔다. 나는, “주님, 도와 주세요, 도와 주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하지요?” 라고 물었다. 주님은, “**나는 너를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 너의 모든 몸과 혼과 영이 씻어지기 원한다.**” 그리고 나는 어떤 특별한 물로 씻어 졌다. 그리고 천사들은 나의 몸에 기름을 부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이전의 길로 다시 돌아 가지 말아라, 나의 딸아.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이다.**”

나는 “주님,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목사님이 저를 고치려고 하실 때 마다 그분을 거스르고, 제가 하지 않아야 했던 말을 하였던 것을 용서 해 주세요.” 나의 목사님은 항상 내가 옷 입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목사님과 여러 번 언쟁을 했었고, 나는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제 그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는 항상 목사님을 거스려 왔다.



그리고 나는 다른 방으로 갔는데, 또 다른 세 천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흰 천으로 내 몸의 물기를 닦았다. 천사들의 얼굴에는, 내가 씻는 과정 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한 연민으로 보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여기에서 주님을 볼 수 없었으나, 음성은 들을 수 있었다.

다른 세 천사가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 가서, 내게 희고 긴 드레스를 입혀 주었다.

천국에서 다른 성도들을 보다



천사들이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 갔는데, 그곳에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으며, 엄청나게 아름다운 빛이 그 문을 통해 빛나고 있었다. 주님이 내게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나는 성결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나는 도시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며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나의 성도야, 때가 되었으며, 시간이 되었고, 여기에서 본 모든 일을 볼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나는, “주님,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다.

예수님은, “네가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할 때가 왔다.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할 때이다.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나의 교회들에게 전하여라. 그것은 내가 나의 교회들을 온전케 할 것이며, 나의 집을 온전케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말은 나머지 세상에 전해 질 것이나, 먼저는 나의 교회에게서 부터 이다.”

지옥에서 본 것



천사들은 나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 아래로 내려 가기 시작하였다. 나는 너무나 무서웠으며, 갑자기 땅이 열리는 것이었다.

나는 “저를 어디로 데려 가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우리는 땅으로 곧장 내려갔는데, 그곳은 참담하였고 모든 곳이 어두웠다. 나는 천사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우리는 한 장소에 다다랐는데, 그곳에는 땅 아래로 내려 가는 한 문이 있었다. 그 문은 땅에서 결코 설명할



수 없이 끔찍하게 보였다.

주님은, “**이것은 지옥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지옥의 벌을 받아야 할 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거기에는 어떤 한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내게 손을 앞으로 뻗치시며, 지옥의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쇠로 지옥의 문을 열자 수 많은 끔찍스런 동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주님, 무슨 일이에요?, 제발 저를 지켜 주세요” 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나는 네게 지옥의 모든 것을 보여 주려고 한다. 그것은 너를 두려움에 떨며 놀라게 할 수 있겠지만, 너를 통해 듣는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님, 저는 여기 들어가기 싫어요” 라고 말했다.

주님은, “**딸아,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어떤 악령들은 나를 잡으려고 했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나는, “주님,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여전히 꼭 같이 내게 보였다. 지옥에서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들으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느낀다. 나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보았다.

지옥에서 가장 먼저 본 부류:

동성 연애자

주님은 나를 “그리스도인들” 이 있는 곳으로 데려 가셨다. 땅에 있는 동안 이들은 주님을 섬겼으나,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일들 또한 행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죽어서 이제 지옥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 변질시킨 목사를 보았으며, 또한 그는 동성애자였다. 나는 악령이 그를 어떻게 고문을 하는가를 보았다. 악령들은 그를 고무관 같은 곳에 넣어 계속해서 뒤틀고 있었다. 그는 엄청난 고통으로 고문을 받고 있었다. 땅에서 그는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였으며, 또한 다른 남자들을 성적으로 대하였던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런 종류의 어떤 일이라도 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의 영혼이 산산이 공중에서 분해되어 터졌다가, 그 조각들이 제 자리로 돌아 가서 또 다시 같은 고문을 받는 것을 보았다. 주님은 그에게, “**너는 땅에서 회개하고 네 길을 고칠 기회가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에게 화면을 보여 주셨다. 그 화면으로 그는 자신이 땅에서 했던 일들을 볼 수 있었으며, 어떤 노인이 그에게 그릇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그 화면에 보였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의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 이제 그는 지옥에 있다. 그는 목사인 척 하였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예수님이 그에게서 등을 돌리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다.

지옥에는 사랑이 없으며, 어떤 선한 것도 없다. 오직 고통과 슬픔만 있을 뿐이다. 나는 지옥에 있는 것이 죽는 것처럼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죽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딸아, 너는 이미 죽었다. 영혼들이 지옥에서 고통 당하는 것을 너도 겪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저의 영혼은 불에 타고 있고, 뜨거운 열기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주님,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요” 라고 말했다.

지옥에서 본 두 번째 부류:

창녀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악령들이 여자들을 고문하고 있었다. 그녀는 땅에서 창녀로 살았다. 주님은 그녀가 살아 있었을 때, 그 생활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녀는 구원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 이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살해되어 이제 지옥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악한 행위들을 미워하신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눈에 가증한 것이다.



나는 악령들이 나체가 된 그녀를 놓고 고문을 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간청을 하였다, “주님,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딸아, 이제 할 수 없단다. 육체에 있는 동안만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에게 화면을 보여 주셨는데, 여러 전도자들이 그녀에게 와서 주님께 드려진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듣지 않았으며 이제 그녀는 지옥에 있게 되었다.

이 메시지는 돈을 위해 자신의 몸을 팔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하는 말이다. 어쩌면 당신은 자녀들을 먹이고 키우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당신에게 남편이 없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께로 돌아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돌보실 것이다. 자신의 몸을 팔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나는 지금 말한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 오라. 하나님은 내게 당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당신이 영원한 고문의 장소에 가지 않도록.

지옥에서 만난 세 번째 부류:

거짓말한 자와 험담한 자

주님은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 가셨는데, 그곳에는 거짓말한 자들과 남의 흉을 보던 험담꾼들이 있는 곳이었다.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남의 흉을 보고 수근대는 것은 당신의 구원을 잃게 하는 일이며, 당신의 이웃에 대해 악한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 당신의 목회자에 대해 흉을 본 말 때문 만으로 당신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로 돌이키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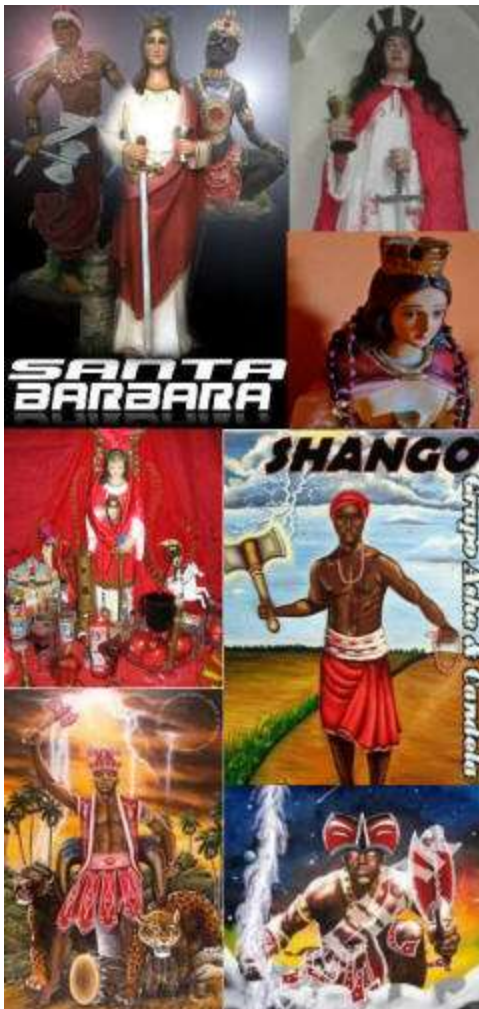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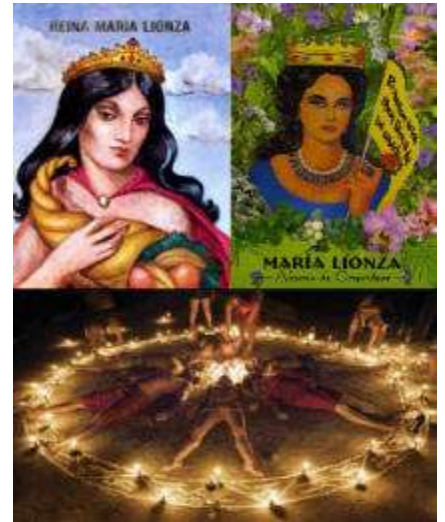
나는, “주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단지 다른 사람의 흉을 보았다는 것 때문인가요? “라고 말했다. 그는 “맞다, 단지 남의 흉을 말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나는, “주님, 주님께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주님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내게 자비를 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의 댓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자신이 언제 죽을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험담을 하는 것은 당신의 구원을 잃게 만듭니다.

지옥에서 본 네번째 부류: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한 자들이 받는 고문은 끔찍하였다. *마리아 리온사*를 섬기는 모든 여인들에게 나는 말한다, 당신은 그녀가 누구인지 아는가? 그녀는 마귀이며, 하늘에 있는 악령의 정사이다. 주님은 *마리아 리온사*가 둘째 하늘의 마귀의 높은 계급의 정사이며 많은 마녀들이 지옥에서 그녀를 숭배하고 높이 고 있음을 보여 주셨다. 지옥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그 불은 밤 낮으로 영원히 불타고 있다.



제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자들은 결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상도 섬기거나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라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며, 그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출34:14)

자신이 그녀를 숭배하기를 원하지 않아도 강요를 당하여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고문도 끔찍하였으며, 지옥에서 그녀를 숭배하는 동안 담배를 피우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이며, 그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며, 또한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10:10).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부르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저의 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계획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지옥은 실제로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에 16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충분히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대한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옥에서 바바라와 상고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바바라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을 당신 집 밖으로 속히 던져 버리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는 매춘을 잡고 있는 하늘의 정사인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바바라는 사랑이 없으며, 전적으로 멸망하게 합니다. 그녀는 뒤에 마귀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정에 화평을 깨트리도록 하는 큰 멸망의 악령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집에 그녀의 우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말씀과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만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왜 이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는 그들에게 나의 성도들을 보내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화면을 통하여 자신이 땅에 있는 동안 모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보았다. 그 영혼들은 지옥에서 주님께 변명할 수 없었다.

만일 당신도 회개하지 않거나 당신의 길을 고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은 후에 자신이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류:

술 마신 자

주님은 나를 지옥의 다른 곳으로 데려 가셨는데, 그곳은 커다란 술집과 같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소리치며 자비를 구하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술을 마시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밤낮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술을 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술을 마시기 위해 어린이들의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는 자, 술을 마시는 모든 여자들에게도 전하여라. 이 말을 통해 자신의 길을 돌이키라고 전하여라.”

나는 잃은 영혼들 앞에 놓여진 식탁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술들이 놓여져 있고, 그들은 억지로 술을 마셔 대야 했습니다. 그들은 산 (acid)으로 가득 차



있는 병을 들이키며, 불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산산 조각 공중 분해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님,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지옥에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있는 동안 그가 술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전도자는 그에게 예수님께 삶을 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전도자는 얼마 있지 않아 그가 죽을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자에게 욕을 하며 그녀를 미친 여자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날 그는 차 사고로 인해 지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억지로 계속하여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는 그 고문에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악령들이 그를 그대로 놓아 두지 않았고, 그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역시 지옥에 있었습니다. 마리화나를 피우는 모든 자들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자

당신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아직 우상을 섬기거나 절을 한다면 오늘 당신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삶을 드려야만 합니다. 당신의 돈으로 당신의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어떤 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억지로 마시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가 누구인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은 나의 성도였다. 그러나 나를 떠났고 그의 길로 행하였으며, 결국 죄 중에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주신 시간과 메시지를 포함하여. 그는 이제 그의 불순종으로 지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부류:

불순종한 하나님의 여종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긴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변화되거나 하나님의 교리들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이 고문은 이전에 본 어떤 고문보다도 더욱 처참하였습니다. 나는 지옥에 있는 하나님의 여종에 대해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면서 그릇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길을 고치라고 했으나 그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나의 목적을 이해하기 원치 않았다.*” 주님은 내게 그 여종들 들 한 사람을 보여 주셨는데, 그녀는 불꽃으로 덮여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악령은 그녀의 머리 위에 갑자기 어떤 액체를 부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다.

나는 “주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었다

주님은 내게, “나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녀는 나의 성도였다. 나는 그녀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했다” (요일2:15) 주님은 그녀의 머리를 염색하는 것을 그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준 흰 머리를 부끄러워하였다. 그녀는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였다.”

나의 머리 색깔은 원래 검은 색이었는데, 나는 파란 검정을 원하였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준 고유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악령들은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으며 그녀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주님은 그녀에게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자 그녀는 주님께 저주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장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 모두는 회색 머리를 가질 것입니다. 악령들이 그녀의 머리에 어떤 액체를 부을 때, 그녀의 목은 옆으로 젖혀 지고 머리카락은 빠지기 시작하였으며, 그녀는 도와 달라고 외치며 손을 앞으로 뻗었습니다.

나는, “주님,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머리를 염색하였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녀의 머리는 매우 길었고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원래의 모습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회색 머리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 저는 머리 염색을 하는 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주님, 그녀를 도와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땅에 있는 동안 한 목사를 그녀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녀는 전도사로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설교할 때, 자신이 먼저 회중들에게 보이기 위해 애를 써서 그들의 마음에 들게 되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하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기를 위한 적이 없었으며, 그녀는 결국 죽어 이제 지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한 때 그녀는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화장의 허영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나는 자신의 얼굴에 화장하는 여인들에 대해 보여 줄 것이 있다”

나는, “주님, 저도 화장을 했었습니다. 얼굴을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파우더를 발라서 얼굴의 점들을 가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한 여인이 자신의 손에 거울을 가지고 있으면서, 악령이 그녀의 얼굴에 페인트 칠을 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얼굴에 한 액체를 바르자 그녀의 살점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아마 당신은 이 말을 들으며 화장이 왜 죄인가 하고 의아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 순종을 하지 않았던 그 여인은 지옥에서 아직도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지옥에서 밤 낮으로 자신의 얼굴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장을 하였던 수 많은 여인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느냐?*”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야 합니다: *요한 일서 2:15 -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모두 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땅에서 사용한 모든 종류의 화장은 지옥에서도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입술이 반짝이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끌기 위해 입술을 촉촉하게 하는 입술 연지를 발랐습니다.



나는, “*주님, 저는 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죄는 지옥으로 끌어 당기는 무서운 인력이 있다는 것과, 그 인력에 끌려 가는 결과를 알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화장하는 것을 중지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여인은 줄 가운데서 그녀의 얼굴에 계속하여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입술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여인들이여,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 보지 말고 오늘 당신 자신의 삶을 살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당신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응답하십니다.

지옥에서 본 일곱 번째 부류

보석으로 치장하는 여인들: 보석의 허영

주님께서 “*이제 보석으로 치장하는 여인들이 있는 곳을 보여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 전서 2:9) 나는 마귀에 의해 귀에 귀걸이를 하도록 강요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여인들이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십니다. 나는 “*그렇지만 주님, 이것은 그냥 보통 장식인데요*” 라고 항거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딸아 그런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서 본 여덟 번째 부류:

가족과 사랑하는 자들

주님은 지옥에서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 곳으로 데려 가셨습니다. 나는 “*주님,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누구인지 보여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내가 몇 년 전에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결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지금 너 때문에 지옥에 있다. 나는 그녀의 영혼을 너를 통하여 구원하기 원했다 그러나 너는 그녀에게 나에게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나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비를 구하며 울부짖었으며 나도 “주님,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구했다. 이 여인은 땅에 있는 동안 술에 빠져 살았다. 나는 화면을 통하여 그녀가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 삶을 굴복할 모든 기회를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거부하였다. 하루는 내가 그녀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전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내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 죽이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무서워했고, 그녀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어거스티나였으며, 그녀는 이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지옥에서 본 아홉 번째 부류:

마약 중독자

나는 지옥에서 마약을 하도록 마귀에게 강요를 당하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악령은 그에게 불이 붙은 담배와 같은 것을 주었다. 나는 “주님,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이리 와서 그가 누구인지 보아라.**” 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보려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나의



동생인 에서였다. 너무나 큰 충격에 사로 잡힌 나는 울며 부르짖었다, “주님 제 동생을 구해 주세요.” 그는 주님에게로 손을 뻗어 자비를 구하고 있었다.

주님은 내 동생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네가 감옥에 있을 때 네 생명을 내게 바치며, 내가 너를 거기서 나오게 하면 네 평생 동안 나를 섬기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느냐?**”

내 동생은 대답하였다, “주님,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은 그에게 화면을 통해 어떤 장면을 보여 주셨다. 그가 오래 전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을 섬기겠다고 모든 약속을 하였던 날의 장면이었다.

주님은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2년 후에 그는 살해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팔에서 숨졌다. 나의 피를 나누었던 친 형제가 지옥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하였다. 나의 동생은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매우 처참한 죽음을 맞이 하여야 하였다. 나는 이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주님은 내가 반드시 말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나의 동생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가장 많이 울었다.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우시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은 한 때 목사였던 여인을 보여 주셨다. 그녀는 화염이 가득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머리에는 가발이 얹혀 있었다. 주님은 “그녀가 얼마 전에는 나의 성도였고, 목사였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녀를 능력 있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나의 말에 불순종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께 그녀에게 도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녀는 손을 주님께로 뻗어 도움을 간구했다. 나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근심 거리가 될 것을 안다. 그녀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교리를 마음대로 바꾸어 주님의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였으며, 언제나 헛된 말을 하였다. 주님은 그녀가 땅에 있는 동안 행하였던 모든 일을 화면을 통해 보여 주셨다. 주님은 그녀에게 물으셨다. **“너는 나의 성도 엘마를 통해 나의 말을 전한 것을 기억하느냐?”**



나의 여동생인 엘마가 이 여인에게 한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나의 자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였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때가 너의 길을 고치고 내게로 돌아 올 기회였다. 그러나 너는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너는 이곳에 있게 되었다. 너의 딸이 너를 안고 '엄마, 돌아 오세요'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 그러나 너는 결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이 등을 돌리자 그녀는 주님께 저주를 퍼부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등을 돌리시며 너무나 고통스럽게 우셨다.

나는, **“주님, 왜 우세요”** 라고 물었다. 주님은 **“너는 내가 영혼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옥에 있는 사탄의 보좌

예수님은, **“나의 딸아, 내가 이제 보여 줄 것은 이전에 보여 준 적이 없는 것이다. 나는 네가 이것을 보고 사탄이 거짓말 장이라는 것과 모방자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 제발 저를 여기에서 나가게 해 주세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간청하였다.



주님은 내게 지옥에 있는 사탄의 보좌를 보여 주셨다. 사탄은 지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흉내 내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것처럼 모방하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 천사들이 둘러 서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그들은 단지 악령들일 뿐이다. 그는 때와 더러움으로 찌든 흰색 예복을 입고 있었다. 또한 지옥에서 사탄을 칭송하는 24 장로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자신의 면류관들을 던지며 숭배하고 있었다. 사탄의 보좌는 천국을 모방하는 것으로 가득 했으나, 모든 것이 처참하게 보였다.

그때 사탄이 악령들을 부르더니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하며 그를 지옥에 데려 오라고 명령하였다. 악령들은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였다. 사탄은 언제나 파괴를 위해 악령들을 땅으로 보낸다.

지옥의 책

주님은, **“나는 네가 사탄은 모방자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 또한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는 세상의 파괴자임을 알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악령이 매우 긴 손톱을 가진 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의 손이 한 책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악령은 지옥에 갈 영혼들의 이름을 써 내려 가고 있었다. 나는 “주님,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주님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여라. 사탄이 그들의 이름을 지옥 책에 기록하였다고 잘 보아라, 이 악령은 사고를 일으키도록 보냄 받았다. 여러 곳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 날 것인데, 그것은 모두 사탄과 악령이 일으킨 것이다. 네가 이 모든 것을 꼭 보아야 하는 것은 네가 세상에 가서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세상이 지옥이 실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지옥에서 받은 고문

주님은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 가시는 동안, 나는 졸라 대었다. “여기서 나가게 해 주세요 이곳은 너무나 끔찍해요”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속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긴 손톱을 가진 너무나 무섭게 보이는 큰 악령이 내게로 왔다. 그러자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었다. 그 악령은 나의 머리채를 잡고 날았으며,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나만 홀로 남았다. 악령이 나를 어떤 곳으로 끌고 갔는데, 다른 악령들이 내게 온갖 더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한 목소리가 “너는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고문을 받을 것이며,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 지옥에서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나는 “주님,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울부짖었다.

구강 섹스의 악령

매우 긴 입을 가지고 있는 다른 악령이 내게 다가 왔다. 나는 악령을 밀쳐 내려고 안간 힘을 썼으나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의 입을 나의 입에 넣으려 하였으며, 나는 그의 침이 나의 입 안에 가득한 것을 느꼈다. 나는 “주님, 왜 이런 일을 제게 허락하세요?” 라고 부르짖었다.

주님은, “이 일은 반드시 적어야 하는 일이다. 네가 땅에 있는 나의 백성들에게 지옥이 실제로 있으며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 주기 위해 꼭 필요하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교회 안에는 그들의 입으로 모든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나는 “주님, 이런 일들을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보여 준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하여라”

주님은 내게 화면을 통해 온갖 종류의 부도덕한 것들을 보여 주셨다. 거기에는 오늘 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비밀스런 죄를 짓고 있었다. 나는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주님은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말 하여라. 그들에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여라. 그들의 입은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있는 것이지 부도덕한 행위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여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 이 악령을 제 몸에서 떼어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다. 그것은 내 온 몸을 입으로 핥고 있었다. 그의 검은 침은 나의 온 몸을 둘러쌌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하였고, 냄새도 지독하게 더러워 죽어서 썩은

개와 같은 냄새가 났으며, 말로는 도저히 설명하지 못한다. 나는 주님께 “주님, 저를 도와 주세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며 울부짖었다.

예수님은, “**딸아, 잠잠하여라. 이 모든 것은 네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 저를 왜 혼자 두셨나요?” 라고 물었다.

춤의 허영

그러자 다른 악령이 와서 나를 다른 영혼들이 춤을 추고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나는 “주님, 다음엔 또 뭐죠?” 하고 물었다. 나는 불길 안에서 억지로 춤을 추어야 했다. 나는, “주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야 하나요?” 라고 물었다.



주님은 “**너는 춤을 추는 댄서이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 음악과 네가 좋아하는 모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춘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춤을 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주님은 “**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춤 추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허리를 움직인다. 그런 것들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을 찬양 하는 춤이 아닌, 세속적 춤을 말한다, 사무엘하 6:14)

나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했다. 나의 영혼은 불에 타고 있었고 나는 화염 속에 싸여 있었다. 나는 지옥이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실로 말을 하는데, 지옥은 정말 있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



악령들이 나를 구더기와 벌레가 가득한 곳으로 끌고 갔다 그 구더기들은 내 온몸의 모든 부분 안으로, 나의 귀, 눈 안으로 들어 갔다. 나는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두 다 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주님은 “**이 일은 모든 사람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너는 가서 그들에게 지옥이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구더기로 고통을 받는 곳에서 나왔다. 주님은 “**이것은 네가 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 구원 받을 영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이곳에 데려 오지 않았으면, 너도 지옥에 갔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지옥에서 온 몸에 불로 인한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갑자기 밝은 빛이 내 앞에 비추더니 주님이 나타나셨다. 나는 주님께 달려가 주님을 안았다. 나는, “주님, 왜 저를 혼자 남겨 두셨어요? 왜요?” 라고 물었다.

주님은 “**그래, 나의 딸아, ... 딸아, 이 모든 것은 필요한 일이었다. 네가 지옥에서 받는 영혼의 고통을 직접 겪어야 네가 세상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나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며, 또한 다른 것들을 보여 주셨는데, 지금은 밝힐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말하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오직 주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만 말할 수 있다.

천국의 여정 천국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

주님은,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보여 주겠노라. 나는 그들을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하였다. 그곳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며, 그들이 또한 있을 곳이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나를 천국으로 곧장 데리고 가셨다. 나는 거기서 큰 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 나는 “주님, 지옥은 끔찍하였는데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군요” 라고 말했다. 주님은, “딸아, 내게 천국을 보여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천국에서 커다란 도시와 같은 곳을 보았다. 그곳은 너무나 컸다. 주님은 내게 순금으로 된 길을 보여 주셨다. (계21:21) 나는 천국의 길을 따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다. 지상의 어떤 꽃도 것처럼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나를 어떤 곳으로 데려 가서서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네게 강을 보여 줄 것이다.” 나는 유리와 같은 강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반짝이는 돌들도 있었다. 거기는 물고기도 있었으며, 주님이 손으로 한 마리를 물 밖으로 끄집어 내셨는데, 물고기는 기뻐하며 주님의 손 바닥 위에서 놀고 있었다.



나는 “주님, 물고기를 강에 보내 주세요. 물고기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주님은 “이곳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 여기에는 죽음이 없다. 이곳은 생명만 넘치는 것이다. 이곳에는 모든 것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 지옥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길을 고쳐서 천국으로 올 기회를 왜 주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은 불순종한 결과이다.”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은 나를 이곳 저곳으로 데리고 다니셨다. 그 강은 너무나 아름다웠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나는 “주님이 구원하신 영혼들은 어디에 있나요? 천국의 어디에 있나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여 주겠다” 라고 대답하시며 나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나의 자매들을 보여 주셨다. 그들의 이름은 오로라와 에스페란자였다. 나는 또 다른 자매를 보았으며 그녀는 나의 조카, 그레이스였다. 그녀는 매우 젊고 아름다웠다. 주님은 “이들이 나의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천국에는 너무나 평화로웠으며 천국의 성도들은 천사와 같았다. 또 어린 성도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옷은 달라 보였다. 그곳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하였으며,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제 나의 성도들이 입을 옷을 보여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제 옷도 보여 주시겠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나의 성도들이 입을 옷을 보여 주마**” 라고 하셨다.



나는 어떤 예복은 흰 색 위에 금으로 장식이 된 것을 보았다. 예복은 금으로 된 허리 띠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예수님은 “**이것은 나의 성도들이 입을 예복이다. 이 예복을 입을 사람은 아직도 세상에 있으며, 나를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 면류관을 보고 싶어요. 저의 목사님의 면류관을 보여 주세요. 그리고 저의 것도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 주님은 “**둘 다 보여 주마**” 하시며 매우 아름다운 면류관들을 보여 주셨다.

나의 면류관에는 보석이 하나도 박혀 있지 않았으며, 목사님의 면류관처럼 감격스럽지 않았다. 나는 “**제 것은 왜 목사님의 것처럼 보석이 없나요?**” 하고 물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 이 수많은 보석이 박힌 면류관을 위해 겪어 온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천사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 면류관에 보석을 붙이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당신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 천사가 당신의 면류관에 보석을 붙인다.

당신이 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울 때 천사가 당신의 면류관에 보석을 붙인다.

당신이 과부를 도울 때, 천사가 면류관에 보석을 붙인다.

당신이 가난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도울 때, 천사가 당신의 면류관에 보석을 붙인다.

주님은 내게 나의 목사님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고생을 겪었다. 그녀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 많은 일들을 겪었다. 그녀는 영혼들을 위한 열정이 넘친다.

주님은, “**그녀에게 다른 이가 그녀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계 3:11)

그리고 주님은 내게 모든 성도들의 면류관들을 보여 주셨다; 그들 중에는 아직도 주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은 자들도 있고,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다.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주님은 “**딸아, 내가 네게 보여 줄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멀리서 나는 매우 큰 보좌, 너무나 특별한 보좌를 보았다. 주님은 “**이것이 나의 아버지의 보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거기에 앉으셨다. 보좌의 광명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나는 장로들이 엎드려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들은 결코 경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나는 주님의 보좌에 둘러 선 많은 천사들을 보았다. 계시록에서 이 장소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 천국은 실제로 있는 장소이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 나는 수 많은 천사들이 천국에 있는 것과 그들이 주님을 볼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다.

주님은, “**딸아,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 그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하고 물었다. 주님은, “**그렇다**” “**나의 딸아, 영광은 내게 속해 있다 모든 영광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어 갖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사야 42:8).

천사들은 노래하며 주님을 항상 경배하였으며, 멈추지 않았다. 나는 좋은 목사님들이 계신 교회는 주님을 경배하고 있음을 보았다. 나의 자매 제스민은 예배 인도자이다. 주님은 “**교회의 성가대에게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일들은 그치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 마다 천국에서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찬양한다는 것을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이여, 주님은 당신이 그분을 더욱 경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에게 나를 경배하라고 말하여라**” 주님은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아버지이시다!

천사들은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하며 주님을 경배하였다. 그들은 매우 아름다웠으며, 그들 가운데 평강이 넘쳤으며,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경배하였다.



주님은 나를 데리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 주셨다. 그들 옆에는 또 다른 천사들이 일곱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들은 매우 키가 엄청나게 컸고, 흰 예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 희기는 말로 설명을 다 할 수 없었다.



나는, “주님, 이 천사들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주님은 “**이들은 땅으로 보내 질 천사들인데, 땅을 멸망시킬 천사들이다**” (계시록 15:7)

천사들은 이미 그들의 손에 나팔을 잡고 있었으며,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주님, 그들은 왜 그렇게 키가 큼니까?” 라고 물었다. 주님은 “**그들은 군주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질문을 더 하려고 하자, 주님은 “**호기심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아라. 너무 많은 의문을 갖지 말아라. 내가 네게 보여 준 것과 네게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하여라. 그들에게 천국은 오직 하나만 있으며, 다른 천국이 없다고 말하며, 내가 실제로 있다고 말하여라. 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많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신다고 말해라**” 라고 하셨다.

주님은 “*이제 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 날 것인지 보여 주마*” 주님은 어떤 베일 같은 것이 있는 장소를 보여 주셨다. 주님은 “*나의 교회에게 일어날 일을 보아라. 나의 교회에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오직 나의 아버지께 거룩한 나라만을 바칠 것이다. 나의 교회는 준비되지 않았다. 곧 나팔을 불 것이니 준비하라고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의 만찬의 식탁에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을 보았다. 주님은 “*이제, 성도들이 나와 함께 먹을 곳을 보여 주마*”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매우 긴 식탁에 아름답게 장식 된 흰 테이블보와, 금 잔과 의자들이 모든 곳에 준비되어 있었다. 의자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써 져 있었으나, 언어는 내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주님은 나의 자리를 보여 주시며 말씀하셨다, “*나의 교회에게 준비하라고 해라, 식탁이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말해라.*” 나는 “*주님, 이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앉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님은, “*앉지 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와서 주님의 귀에 대고 무엇이라고 말을 하였다. 나는 “*천사가 무어라고 했나요?*” 라고 묻자, 주님은 “*알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내게 “*딸아, 이제 시간이 되었다. 돌아 갈 시간이다. 나의 교회에게 준비하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 준 모든 것을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안 되요, 주님, 저는 돌아 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했다. 주님은, “*돌아 가야 한다, 그래서 네가 본 모든 것을 다 전하여야 한다. 식탁이 이미 준비가 다 되었으며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여라. 너희는 자신을 준비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교회는 이리할 것이다: 더러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더러는 위선자들이며, 더러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며, 더러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나의 집에서 의무이기 때문에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목사에게 보이기 원하고 칭찬을 듣기 위해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셨다!

불순종하는 자녀들 교회 안에서의 휴대폰

주님은 내게 한 교회를 보여 주셨는데, 그 교회의 목회자는 단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설교를 멈추고 휴대폰을 받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주님은, “*그들이 나의 임재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보느냐.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는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휴대폰에 귀를 기울인다. 목회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교리는 잊어 버리라고 말하여라. 그들은 너를 미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너를 이곳에 데리고 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회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목회자들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정할 때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교리는 잊어 버리십시오. 어떤 사람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는 나의 교회를 함께 모을 것이다. 나는 오직 한 교회만 있을 뿐이다. 오직 한 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 없다. 이 교회를 나는 천국으로 데려 갈 것이다; 그 교회를 나는 나의 아버지께 바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 복음 10:16)

우리는 모든 것에 주님께 굴복하여야 한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전의 길을 버리는 자, 거듭난 자, 그들은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말을 하라고 부탁하신 것을 모두 말하였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곳에 있으며, 주님이 내게 말을 하라고 하신 것을 말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가 회개하게 하여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 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주님께 “주님, 제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라. 그러면 주님은 당신에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해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 천국은 실제 장소이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드리라.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그는 당신과 함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주님은, “내가 네게 보여 준 이 모든 일들은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계시록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모든 계시들은 모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증거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This testimony is a.k.a. HEAVEN AND HELL ARE SO REAL
[Originally in Spanish: Testimonio del Cielo y del infierno de Adelaida de Carrillo -YouTube]
Illustrations were added, and not part of the original testimony.*

번역: 이 명주 (myongkim77@gmail.com)